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8월 12일 (금)
...(음력 7월 15일)...
Пятница
12 августа 2022г.
№ 31 (1199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15일은 광복절이다. 이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펼쳐진 풍물놀이 .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사할린주 사회복지 직원들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간담회 열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사할린주 사회복지 기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지원 문제가 제기됐다.

사할린에서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 있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빈곤의 양상 탈피'에 따른 기획 실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각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에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재발급을 돕고, 안정적 직장을 얻도록 재교육을 진행하며, 주 기업의 대표 중 후원자들이 이런 가정들에게 맞춤형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종합지원정책으로 모두 850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저소득층 가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빈곤 탈피> 기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에 1만120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과 매주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보호 라인의 접속 시간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다. 매번 이 가정들로부터 그들의 문제와 삶의 감동적이 이야기 들 듣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사할린의 사업가들과 기획 실행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사회복지부의 법적인 기능은 모두 협조하며, 규정되어 있으나 후원자들은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지사가 밝혔다.

이외에도 <모범 부문> 기획의 실시 결과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현재까지 고령층과 장애인 2천여 명 이상이 가정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 높은 수준의 청소반이 청소를 해주고, 사회복지 직원들이 남녀 노인들에게 현대적 디지털 서비스 이용법을 가르치고, 약품과 식품을 구매해주며, 병원에 동행해주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할린 주민 카드도 질적인 삶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어 9만 명 이상이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카드는 학생과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제공되어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아쿠아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점, 약국, 교육 및 스포츠·오락센터에서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할린주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1300 곳이나 된다. 또한 이 카드는 의료보험증, 개인 보험증과 유사하게 쓰이고 있다고 주지사는 덧붙였다.

주지사와 비공식적 만남이 이어져 사회복지 직원들은 전문 기관으로서 아주 평범하고도 절박한 질문을 주지사에게 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공무원의 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과 의사와 교육자와 동시에 사회복지 근로자들에게 주는 추가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사회복지 분야 우수 근로자들 13명에게 사할린주 75주년 기념 훈장이 수여됐다.

4개 '스마트' 체육시설 건설을 위해 사할린주에 1억 루블리 배정

러시아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부총리가 사할린주 방문의 일환으로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실무적 만남을 가졌다. 만남에서 사할린의 제반시설로서 IT와 스포츠 개발을 논의했다. 체르니셴코 부총리는 사할린 지역이 '비즈니스-스프린트' 새로운 연방 기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기획은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승인한 전략적 주도 프로그램을 토대로 개발되었는데, 이는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 사할린주에는 4개의 '스마트' 체육시설 건설로 1억 루블리 이상이 배정됐다. 내년에는 대형 조립식 체육관도 건설할 예정인 가운데 6천만 루블리가 책정됐다.

지역 지도부가 스포츠 제반시설을 조성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를 하는 주민들의 비율을 증가시키라는 대통령이 정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부총리가 말했다.

올해 스포츠 시설들이 돌린스크, 티몹스코예, 스미르니흐 구역에도 생길 전망이다.

"사할린주는 러시아의 가장 스포츠적인 지역들 중 한 곳이다. 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일상에서 활동적 유형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우리는 자랑스럽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할린에 많은 국제적 수준의 체육 시설들이 건설되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규모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연방자금이 지원되어 사실상 이러한 작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사할린에 건설 분야 종사자들에게 크게 축하

8월 10일(수) 주 정부청사에서 직업 기념일인 건설인의 날을 맞아 경축식이 열린 가운데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건설 분야의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사할린 주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직업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건축업은 중요하며, 존중받는 직업입니다. 여러 면에서 수많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번영과 안녕, 우리 지역의 발전이 여러분의 수고에 달려있습니다. 사할린에서 건설 산업의 발전은 중요합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이룩한 성취에 대해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50m²의 기록적인 건설량을 이뤄냈으며, 1인1 m² 이상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는 러시아 거대 100개 도시의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가 인사말을 전했다.

2021년 사할린주에서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주택을 얻어 이사했고, 2022년에는 사할린과 쿠릴의 5천여 명의 주민들이 노후주택으로부터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5년에 걸쳐 사할린 지역 주민 3만여 명이 아파트 열쇠를 받게 된다.

또한 사할린에 보건, 교육, 문화, 스포츠 시설과 교통 제반시설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공항 착륙 활주로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신청사를 건설 중이며, 육상 경기장, 복싱 센터, 상담 검진센터의 치료 검진 병동, 4호 보건소의 2차 병동, 농산물 도매 유통센터가 있는 1차 농산물 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올해 달네에 지역에는 2호 보건소가 착공되며, 티몹스코예와 포로나이스크의 보건소와 크라스노고르스크 지역에 병원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자금을 유치해 종합체육관, 수상 종목 스포츠센터와 빙상장 건설도 추진할 전망이다.

<아시아의 아이들> 하계 스포츠 경기에서 사할린주 선수들 10개 메달 획득

'아시아의 아이들' 제7회 국제 스포츠 경기가 막을 내렸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이 경기에 13개국에서 1,355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들은 13개 종목에서 총 199개 상을 놓고 경기를 치렀다.

사할린 선수 16명이 포함돼 있는 극동연방관구 선발팀은 경기에서 금메달10개, 은메달 14개, 동메달26개로 총 50개 메달을 획득한 결과 종합 8위를 차지했고, 사할린의 선수들은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차지해 총 10개의 메달을 따냈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8월 14일은 건설인의 날

36년간 건설분야에 삶을 바친 오기철 사장

세 형제 중 맏이 오기철(1964년생, 러시아 명 왜제슬라브 드미트리 예위츠)씨는 책임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맏아들인 그는 평생 책임을 짊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 오기철 씨를 섭외하기가 어려웠다. 너무 바빠서 만나기도 어려웠다.

오기철 씨는 건설을 개인사업으로도 하고, '렘홀로드'회사의 수석 건설 엔지니어로 뛰고 있어서 더더욱 바빠보였다.

그는 돌린스크구역 브즈모리에 마을 출신이지만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해서 제6호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후 노위시비르스크건설대학에 입학하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갔죠. 전공은 토목공학이었는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죠. 어렸을 때부터 기계 만질줄 좀 알고, 손 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공을 선택했나 봐요."라고 오기철 씨가 말했다.

소련 시절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 파견제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오기철 씨는 1986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노위시비르스크 제1건설관리국으로 파견되었다.



"그 당시 사실 건설에 대한 아무 경험이 없었죠. 실습한 적도 없었고, 대학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었죠. 제가 책임자(마스터)로서 그때 네 개 브리гада(작업반)를 맡았는데 제 밑에서 120명이 일했습니다. 그때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을 했는데 우리가 맡은 일은 내부 설비 작업이었습니다."라고 오기철 씨가 회상했다.

물론 경험이 없는 그는 처음 무척 힘들어했다. 대학에서 배운 것과 현장 작업은 달랐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문가로 존경을 받는 것도 바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오기철 씨는 직장에서, 일하는 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사람들과 잘 소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로 이해하고 의견을 존중하면서 나누는 것이 모두가 함께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잘하는 관계로 입사 2년 후 그는 우차스토크 책임자로 승진되었다. 이견 마스터(책임자) 2명과 그들 아래 있는 브리гада들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인데, 그만큼 오 책임자의 전문적 능력과 리더십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빠진 1991년에 그는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자기 소유 아파트를 사할린 아파트로 바꿀 수 있어서 사할린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미 결혼했고 아들도 생겼다. 그의 아내는 그가 어렸을 때 부터 알던 여인이었다. 그분과 함께 약 35년을 함께 걸어와 아들과 딸의 아빠가 되었다. 아들은 이미 장가가서 두 명의 손자까지 낳았고, 20대의 딸은 함께 살고 있

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서 부모에게 손벌리지 않는다.

물론 오기철 씨에게는 인생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싶고 소통도 많이 하고 싶다고 말한다.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잘 살았으면 합니다."라고 오기철 씨가 말한다.

밝고 낙관적인 성격이라 그는 농담도 할 줄 알고, 남의 익살에 웃어주는 사람이다. 많은 사할린 사람들처럼 낚시를 즐기고 사냥을 좋아한다. 겨울 낚시는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한다. 겨울에는 건설 작업이 많이 없어서 휴식 시간을 갖는다.

여름에는 건설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시즌이다. 게다가 오기철 씨가 책임자로서 결산보고서류를 많이 작성해야 하느라 쉴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2개월 동안 딱 한번만 야외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90년대에 사할린에 돌아왔을 때는 그는 '브레마'회사에서 건설 자재 공급자, 엔지니어 등으로 활약하고 하루도 건설 분야를 포기하

지 않고 일했다. 2000년대 초기부터는 건설자로서 개인사업을 시작했고, 그 동안 좋은 파트너들도 만났다. 물론 자선사업도 하고, 한 사회에도 헌사한 것도 있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수리할 때도 많은 것을 무료로 공사해준 걸로 알고 있다.

수준 높은 건설전문가로서 그는 사할린 주지사의 표창장, 주건설부의 표창장과 상장도 받았다.

벌써 6년째 그의 회사는 입찰을 통해 '로스테레콤'과 계약을 맺어 건설 작업을 맡고 있다. 올해도 경쟁 입찰에서 이기고 '로스테레콤'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 계약에 따라 올해 마카로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섬지역 7개 지역에서 새 공사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다. 믿음직한 건설업자로, 그리고 책임자로 인정받아 계약이 계속 이뤄지는 것 같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사무실에만 아니라 매일 현장에 나가는 오기철 씨는 '앞으로 움직여!'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좌우명일 것이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에서 <아포스트로브> 연례 창작곡 축제 열려

8월5일(금) -7일(일)까지 제8회 창작곡 발표회가 사할린 스타로루스코예 마을에서 열렸다. 이 축제는 사할린주 형성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이에 무르만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와이니노, 라잔, 하바롭스크 등 러시아 전역에서 예술인들이 참가했다.

사할린주 대표로 포로나이스크의 '미르' 영화 및 오락센터 '로토스' 예술적 낭독회의 알렉산드르 부라브첸코, 옐레나 투티노와, 류드밀라 코노펠코, 굴사라 투크타로와가 무대에 나섰다.

심사위원들은 '미레디' 듀엣팀이 부른 <아마추어 정원사의 고백>에 특별히 주목했다.

관객들은 손뼉을 치며 공연자들을 따라 노래를 불렀다.

사할린 대표 참가팀은 축제의 심사위원들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하여, 알렉산드르 부라브첸코는 <두락(명칭이)>, <사할린>이란 노래로 '장르의 명확성'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굴사라 투크타로와는 '포에지야(시가)'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축제는 대형 모닥불 점화와 기타 연주로 노래를 부르며 마무리된 가운데 축제 참가자들과 관객들이 다정하게 노래를 부르며, 시를 낭독하고, 지난날들에 대한 추억들을 공유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АПОстр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авторской песне, состоялось на прошедших выходных, с 5 по 7 августа. Фестиваль автор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в селе Старорусское уже в восьмой раз. Фестиваль был посвящен юбилейной 75-ой годовщине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ие в концерте приняли коллективы со всей России: из Мурманс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аиноно, Рязани и Хабаровск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ли жители Поронайск — участники студ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лова «Лотос» кино-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Мир» Александр Буравченко, Елена Тутинова, Людмила Конопелько и Гульсара Туктарова. Члены жюри особенно отметили выступление дуэта «Мыледи» с песней «Исповедь садовода любителя». Зрители хлопали и подпевали,

вторя исполн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й коллектив получил специальные награды от жюри фестиваля. Александр Буравченко был награжден дипломом «За верность жанру» за авторские песни «Дурак» и «Сахалин». Гульсара Туктарова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в номинации «Поэзия». Закончился фестиваль большим костром и пением под гитару. Гости и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дружно пели, читали стихи и 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 прошедших днях.

<승리의 수영대회> 참가자들 사할린에서 쿠나쉬르까지 260km 수영

<승리의 수영대회> 참가자들이 사할린에서 쿠나쉬르까지 260km를 수영하여 건넌다.

9월 3일은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사할린과 쿠릴 열도가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국제 수영 계주가 열린다고 사할린주 동계 수영스포츠(아크바이스-스포츠) 훈련연맹이 전했다.

"수영 계주는 사할린 섬 아니와곶에서 출발하여 쿠나쉬르 섬의 도쿠자예브곶에서 종결된다. 대회에는 전문적 선수나 아마추어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선수들은 바닷물에서 10분-30분을 수영하게 되는데 이는 수중 온도와 파도 및 물살의 흐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사할린주 아크바이스-스포츠 연맹 회장인 와실리 피사레브가 덧붙였다.

이번 수영 계주에는 1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영은 9월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진다.

Участники «Заплыва Победы» проплывут 260 км от Сахалина до Кунашира

Участники «Заплыва Победы» проплывут 260 км от Сахалина до Кунашира. 3 сентября исполняется 77 лет со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этой даты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стафетный заплыв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сообщила Федерация закалывания и спортивного зимнего плавания (Аквайс-СПОР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стафета стартует на мысе Анива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и финиширует на мысе Докучаева острова Кунашир. В заплыв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ы, так любители. Каждый из спортсменов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в воде от 10 до 30 минут. Это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температуры воды, волнения моря и скорости теч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Аквайс-СПОР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силий Писарев.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эстафет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Заплыв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три дня – 1,2 и 3 сентября.

군인들이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탱크 왈츠를 연주

<2022년-군대> 군사기술포럼에서 동부 군관구의 군인들이 '탱크의 왈츠'를 보여준다고 동부 군관구 홍보부가 공고했다.

<2022년-군대>국제 군사기술포럼이 8월 말 사할린에서 개최된다. 기존의 전통에 따라 주요 행사장은 '푸쉬스트' 간이 비행장이며, 추가로 몇몇 행사마당이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현대적 무기 유형과 사할린 지역 군부대에 배치된 군사 기술장비들을 전시한다.

동부 군관구 군부대의 현대적 전투기술의 성능 전시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포럼 참가자들에게 T-80 중전차들이 추는 무용 방식인 '탱크의 왈츠'를 펼쳐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사장비 및 군사기술 전시와 함께 전시 행사장에서는 포럼 관람객들에게 문화 오락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주 창작 및 예술단들의 공연이 계획돼 있다.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первые исполняют танковый вальс на Сахалине

На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м форуме «Армия-2022»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ВО исполняют «Танковый вальс». Событие анонсировала пресс-служб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ий форум «Армия-2022». По уже сложившейся традиции основной площадкой станет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Помимо э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вернуть еще нескольк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ок, на которых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современные образцы вооружен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стоящие на вооружении воинских ча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показа возможностей современной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вперв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гостям форума «Танковый вальс» — синхронное выполнение маневров на многотонных танках Т-80.

Кроме того, на выставочных площадках вместе с показом современ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зрителям форум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ланируется выступление творческих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области.

(8면에 계속)

선거위원회 주두마 선거 준비

사할린주가 오는 9월9일,10일,11일 사흘에 걸쳐 진행되는 제8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사할린 주두마 의석을 두고 9개 정당과 단체의 대표들 136명이 후보자 등록 신청을 했다.

"후보자 등록 명단에는 러시아 자유민주당(38명), 러시아 통합당(58명), 러시아 연방 공산당(42명), 로지나당(20명), 공산당의 러시아 공산주의자당 (30명), 노비에 류지당(새 국민당)(19명), 러시아 자유 정의당(22명), 사회적 정의를 위한 러시아 연금수급자당(23명), '공정한 러시아 - 애국 - 진리 수호'당(37명)이 등록됐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 제출된 서류들은 '사할린 주두마 의원 선거에 대한' 사할린주 법령 제 24조, 27조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사할린 선거위원회 빅토리아 체르카소와 위원장이 발표하고, 선거 준비 절차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표 준비 시 각각의 업무는 엄격하게 작성되며, 몇 단계 감독을 거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투표용지는 특수 종이에 특별 인쇄소

에서 제작되어, 선거위원회가 검사하고, 용지 전달과 보관은 선거위원회 위원과 군기관 요원이 감독한다.

오는 선거에서는 단일 선거구역들과 통합 선거구역에 따른 선거를 위해 37만4401장(유권자 수에 따라)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위원회 정보센터는 투표용지의 이동에 대한 자동화된 보고를 제공한다. 투표를 위한 엄격한 문서로서 해당 지역 국가 자동화시스템 '빅보르(선거)' 기지가 하위 선거위원회 전달에 대한 경로를 감독한다.

유권자의 개표 기술적 기기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아 니와, 홈스크 4개 지방자치체에서 사용된다.

빅토리아 체르카소와 선거위원장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모든 정당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위원회 직원들을 비롯해 법집행부, 지역 사회원의 위원들과 공공 감찰인들이 감시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투표의 공정성이다. 선거위원회는 혹시 있을 그 어떠한 공정성의 의도에 의심이 될 만한 사건이나 사실을 신속하게 검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요약했다.

사할린 동포 역사 캠페인 (달력제작+도서출판) 모금 시작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3' 제작과 이희팔회장의 구술기록 "유언" 한국어 번역출판을 위한 온라인 모금을 8월 10일(수)부터 시작하였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이 기일, 생일, 농사일, 손없는 날 등 일상 생활을 음력으로 지내지만,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작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열 번째 제작이다. 러시아 달력에 음력과 절기, 한국의 명절 및 국경일을 표기하고, 짧은 러시아어 설명을 넣어 3, 4세 동포들도 전통문화를 알 수 있도록 만든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한국의 시민들에게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 모금으로 제작을 시작하며, 사할린동포와 한국의 시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이 달력은 동포들에게는 무척 반

가운 새해 선물이 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할린 방문이 어렵게 되자, 그 비용으로 달력을 추가 제작하여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게도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이희팔(1923~2020) 선생님의 구술을 담은 기록 '유언'의 한국어 출판을 위한 모금도 함께 진행된다. 일본인처와 결혼하여 1958년 일본으로 올 수 있었던 사할린 동포 중 몇몇이 모여 일생을 사할린동포 귀환운동에 바쳤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이희팔 선생님이다.

"화태귀환재일한국인회"를 박노학, 심계섭 등과 결성한 후, 사할린동포와 한국의 가족들 간의 서신을 보내는 우편배달부 역할을 자처하며 귀환희망자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80년대에는 이산가족을 일본에서 만나게 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사할린동포 귀환의 문제를 지속적으

로 제기했고, 이는 재판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10여 년간 이희팔 선생을 만나면서 구술 기록을 해온 나가사와 시게루 선생님의 꼼꼼한 기록 덕분에 '유언'은 마침내 2019년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유언'의 한국어 출판은 사할린 동포를 이해하고,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온라인 모금 참여
1) 카카오 같이가치(~10월 10일까지)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99040>
2) KIN 모금 계좌(같이가치 모금 종료 후)
☞ 우리은행. 1006-301-227783. KIN(지구촌동포연대)
계좌입금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kin2333@gmail.com.

완도군 · 완도농협,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러시아 수출 협약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 사진 가운데)과 완도농협(조합장 김미남, 〃 왼쪽)이 2일 완도군청에서 러시아 사할린에 소재한 업체 (주)베들레헨사(대표 장웅운)와 '완도자연그대로미(米)' 수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완도농협은 2032년까지 러시아 사할린주에 완도자연그대로미를 매년 100 t 이상, 총 1000 t (30억원 상당)을 수출하게 됐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2018년 할랄 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했으며, 2019년에 미국, 2020년에는 러시아까지 수출국이 확대됐다. 특히 러시아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교민들로부터 고국에서 건너온 품질 좋은 쌀로 인정받으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7회, 116 t 을 수출했다.

신우철 군수는 "그동안 공동 방제와 농자재 지원 등 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덕분에 지속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쌀뿐만 아니라 색깔 보리와 밀 등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해양치유 먹거리로 제공해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사할린한국교육원" 2022년 9월학기 수강생 모집

1. 신청기간: 2022년 8월 16일~ 8월 31일
2. 신청희망 강좌
(1) 한국어 : 입문, 초급, 중급, 특강
(2) 문화교실 : 한국 문화(중급, 초급), 필수한자(원장) 주말민속춤교실(아외,당당)
3. 수업 시작일 :2022년 9월 5일(월)
4. 문의 전화 : 50-56-96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2-2023 учебный год.

1. Начало записи: с 16 августа по 31 августа 2022 г.
2. Все желающие
(1)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водный,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спец. лекции
(2)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Культура Кореи (средний, начальный),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мира, весёлый корейский (занятия с директором - песни и иероглифы)
3.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5 сентября 2022 года.
4.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간절 / 이재무

삶에서 '간절'이 빠져나간 뒤
사내는 갑자기 늙기 시작하였다
활어가 품은 알같이 우글거리던
그 많던 '간절'을 누가 다 먹어치웠나
'간절'이 빠져나간 뒤
몸 쉬 달아오르지 않는다
달아오르지 않으므로 절실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으므로 지성을 다할 수 없다
여생을 나무토막처럼 살 수는 없는 일
사내는 '간절'을 찾아 나선다
공같이 튀는 탄력을 다시 살아야 한다

"간절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면 물론 비극이겠지요. 이게 잠깐 스쳐지나가듯 느낄 정도에서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야 이거야 말로 훌륭한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야기를 꾸며내는 작가들이야 이런 균형을 맞추려 오만 방정을

떨며 플롯을 쪼갬다가 뒤집었다가, 캐릭터를 죽이네 살리네, 지금 이 순간도 머리채를 쥐어잡고 있겠죠. 줄담배는 기분, 다들 술을 마시고 있으시려나.

허구가 갖는 매력이야 밤하늘의 별만큼 수도룩할 텐데요. 저는 기적처럼 멋진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감동을 종종 찾아내곤 합니다. 물론 운동이라면 질색. 하지만 관람이라면 전 축구에 환장하는 편인데요. 프리미어리그 팀 중 제가 응원하는 팀은 '리버풀'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5년. '리버풀'의 챔스 결승전 경기를 봐 버렸거든요.

이스탄불에서 벌어진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일단 딱 봐도 '밀란'이 이길 것 같았죠. 이태리 '밀라노' 이리하면 어쩐지 부가 철철 넘칠 것만 같잖아요. 값비싼 명품 거리도 떠오르고, 여행 가보니 이태리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정말 패션 감각이 뛰어나던데. 또 그게 다 '돈' 아니겠어요. 저야 뭐 길을 걷는 내내 한눈 파는 아내에게 '저게 다 돈 지랄들이야' 이리하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떠들어대느라 바빴던 기억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아니나 다를까. AC 밀란은 크레스포며 말디니 등 정말 차원이 다른 선수들이 근사하게 잘들 차더라고요. 전반에만 무려 3대 뺏. 게임 끝난 거죠. 리버풀이 이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잔뜩 고개 숙인 채 죄인처럼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리버풀 선수들이라니.

그런데, 기적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리버풀 베니테즈 감독이 하프 타임에 기가 막힌 빠꾸기를 날리거든요. "고개 들어라이, 야마들아(물론 '야마'라고는 안했겠지만, 제가 조미료를 넣는 버릇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또 리버풀은 촌이니, 사투리 버전이 맞는 듯^^) 고개 수그리지 말어! 우털은 하난기라, 리버풀 아니냐이! 아, 글씨 리버풀은 고겔 숙이지 않는단 말시! 리버풀을 위해 뛰어 분다는 고거 하날 잊어 뽀른 우린 참말로 지는 거시여! 할 수 있다고 믿어 불어야제, 할 수 있당께! 일단 말시! 조금 있다가이, 언놈이든 딱 한 골만 먼저 넣어 부러. 그러고 또 한 골, 이렇게 말이제. 그럼 빛 다 갚는 거랑께. 우털 스스로 영웅되야 부릴 기뻐할 잡아야 현당께!"

눈물을 흘리는 리버풀 팬들 일명 '콧'들이 관중석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들은 예의 그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하죠. 눈물을 훔치며. 결국 캡틴 제라드가 골문을 엽니다. 얼마나 골이 간절했던지, 인간이 아닌 개구리처럼 폴짝 뛰며 헤더를 날립니다. 이 골을 기점으로 스미체르, 알론소의 연이은 슛들이라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리버풀 얘기만 나오면 말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간절'을 얘기한다는 게 제가 이번에도 좀 멀리 왔습니다. 두근두근 달아올랐던 기억과 쉬이 식어가던 기억, 이 두 상반된 이미지가 묘한 균형을 잡습니다. 사색의 힘이 강한 여운으로 남네요. 그날 제라드의 간절했던 골만큼이나 여러분 모두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다치! Удачи!"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звали мост в честь простой жительницы Аляски

Анкоридж, 8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Самый северный штат США Аляска предпринял необычный шаг, назвав мост не в честь исторической фигуры, а в честь живой корейской женщины, которая зарабатывает на жизнь автозаправкой неподалеку.

71-летняя Инсук Бяк родилась и выросла в Пусане, но с тех пор, как она переехала в Анкоридж в 1981 году, она управляет там заправочной станцией. Однако ее настоящая претензия на известност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она более десяти лет каждый год готовит бесплатные обеды на День благодарения для сотен нуждающихс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Теперь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штата решило назвать до сих пор безымянный 235-метровый шестиполосный участок улицы Брэгу, где она пересекает шоссе Гленн в Анкоридже, мостом Инсук-Бяк. Мост был построен в 2008 году.

Идея пришла от мест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я, который предложил это в честь поддержки Бяк и ее работы для сообщества. Город потратит около 7000 долларов США на именную табличку, прежде чем провести церемонию крещения моста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Бяк сначала не хотела, чтобы мост был назван в ее честь, но уступила уговорам городских властей и своего сына.

В РК стартует акция Korea Grand Sale-Summer Special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а также комитет «Посещение Кореи» с 10 по 31 августа проводят масштабную скидочную акцию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Korea Grand Sale-Summer Special. Она нацелена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рынка страны, пострадавшего от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Акция проводится в «низкий сезон»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при участии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занятых в сфере авиаперевозок,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шопинга и развлечений. Это крупнейшее подо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но проводится совместно с фестивалем скидок Seoul Festa,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м на период с 10 по 14 августа. В августе временно возобновлен безвизовый въезд в РК для жителей Японии, Тайваня и Макао. В этот период сем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виакомпаний предоставляют скидки до 92%, а крупные сети гостиниц Lotte Hotel и Shilla stay - до 72%. Ряд онлайн-площадок продают с большими скидка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утёвки, билеты на посещение популяр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KBS World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ведомляет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кандидатам и политическим партия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м списки кандидатов в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Наименование СМ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агит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составит 5167,5 кв. см.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Лето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Лето -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й и новых знакомств. Вот и я задумала побывать в клуб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В. В. Маяковског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луба - Людмила Емельянова - училась и жила в Кор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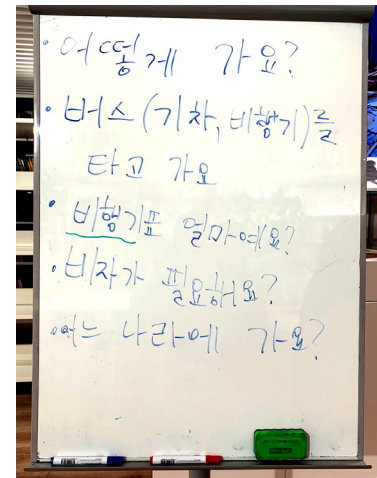
Сегодня петербурженка Людмила преподаё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встречается в библиотеке со всеми теми, кто хочет общатьс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 заседании клуба было больше двадцати человек, у всех разный уровень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о это не мешает посетителям библиотеки говорить и понимать друг друга.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участники клуба разделились на две половинки, каждая часть выполняла свои задания, отработывала на практике полученную накануне от преподавателя учебную лексику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У одной группы было самопредставление и общение о петербургских видах транспорта, у другой - игро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Европе: по разным странам, с покупкой билетов - на автобус, на корабль или на самолет.

Мой летний опыт двухчасовой встречи в библиотеке показал, что заниматьс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надо больше, говорить нужно чаще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 не стесняться допустить ошибку, но стараться добиваться того, чтобы тебя понимали.

Для формулирования основных вопросов и ответов при игре Людмила продублировала на доске необходимые языковые конструкции. Хорошо, что все участники клуба уже знают алфавит.

А вот несколько портретов тех, кто выходной день посвящает приобретению новых знаний и языковой практике. Александру уже 70 лет, он этнический кореец, родом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Несмо-



тра на возраст, активно задаёт вопросы молодым людям и с энтузиазмом играет в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Европе. Софии всего 13 лет, у неё есть корейское имя. А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объясняется ещё и тем, что отец девочки работает в Коре. Луиза - студентка медиц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очень приятная девушка, красиво и правильно формулирует во врем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 игры свои цели. Арина занимается IT-технологиями, родом она из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вот экономист Ольга, наверно, полиглот. Девушка учится в аспирантуре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это не единственное ее увлечение: есть ещё английский и испанский.

Сама же Людмила Емельянова, поддерживая участников клуба в желании говорить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рассказывает, что просмотр фильмов корейских режиссёров и прослушивание песен К-поп - это хорош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ресурс при классическом из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наставником и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 июле и августе такие встречи люб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В. В. Маяковского проходят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но уже с осени заседания клуба будут только один раз в месяц в форме знакомства с разными познавательными играм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напоследок еще одно дополнение. В библиотеке В. В. Маяковского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не только по-корейски. В учреждении работают клубы на других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и даже на эсперанто.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Простой способ сэкономить на покупках продуктов

Сеул, 8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34-летний владелец ресторана в Сеуле Ким Джи Ман с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начал покупать продукты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соседями на рынке Данггун (Danggeun Market), крупнейшей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е в Южной Коре.

«Когда вы покупаете определенный продукт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его по относительно более низкой цене. Вы также можете разделить плату за доставку с соседями, поэтому я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пользуюсь групповыми покупками», — сказал Ким.

28-летний аспирант Ли Хен Чжун часто пользуется рынком Данггун, чтобы получать доставку продуктов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людьми, живущими по соседству. Делая это, он может сэкономить от 50 до 75 процентов стоимости доставки.

По мере роста стоимости жизни в стране и увеличения числа домохозяйств, состоящих из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все больше людей стремятся покупать товары вместе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при покупке предмет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 вспышки COVID-19 Danggeun Market предоставлял местным сообществам услугу группового чат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Давайте сделаем это вместе». Это объединило людей, живущих в одном городе с одинаковыми интересами,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встречаться в автономном режиме, чтобы вместе заниматься своими хобби или делиться схожими проблемами. Однако услуга была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ло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В феврале, когда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выросла с 5000 вон (3,8 доллара США) до 6000 вон, люди начали искать соседей, чтобы вместе заказать еду онлайн. По данным Danggeun Market, количеств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ообщений увели-

чилось на 45 процентов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1 годом.

Оператор платформы вновь открыл мест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службу, чтобы помочь людям бороться с инфляцией. В результате к маю накопленное число пользователей Danggeun Market увеличилось до 30 миллионов, а число его ежемесячных актив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достигло 18 миллионов.

Недавно Danggeun Market запустил обновленную мест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услугу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окупайте вместе», заметив рост спроса на групповые покупки.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свободно загружать пост с конкрет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 том, что они хотят купить, сколько людям придется заплатить каждому и как они будут производить оплату. Как только они соберут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из четырех, люди обсудят, когда и где они совершат покупку.

«Мы видели, как на нашей платформе постоянно загружались сообщения о том, что соседи покупаю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дуктов или разделяют расходы на доставку, заказывая еду вместе. Чтобы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объединять людей, мы решили внедрить услугу «Покупайте вместе»,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Danggeun Market.

Услуга «Покупайте вмест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оступна в ограниченных районах Гванак и Гангдон в Сеуле и Ханам в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до. У них самый высокий спрос на групповые покупки, и в каждом из них есть большие магазины со скидками.

«Недавно мы решили предоставить услугу «Сделаем это вместе»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мы планируем постепенно расширять услугу «Покупайте вместе», — сказал чиновни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остоялась краткая встреча глав МИД РК и России

5 августа на полях 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ого саммита (EAS) в Пномпене состоялась краткая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и России Пак Чина и Сергея Лаврова. Пак Чин сообщил главе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о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связи с предполагаемой подготовкой Пхеньяна к седьмым ядерным испытаниям. В ответ Сергей Лавров использовал выражение tit-for-tat, означающее «обоюд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Это может означать, чт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лежит не только на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о и на РК и США. Лавров отметил, что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использует все возможные средства для оценки ситуац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мыслями о ситуации в Украине и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Сеулом и Москвой. Пак Чи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скорейшую нормализацию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ира в Украине. Он призвал российскую сторону не допустить необоснованного ущерба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мпаниям в России.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помочь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бизнесу и частным лицам в России, если Сеул предоставит конкретные данные. Пак Чин обещал передать детали через нового посла РК в России Чан Хо Чжина.

В Сеуле проходит молодёжный саммит РК-АСЕАН

С 9 по 12 август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центре молодёжи в Сеуле проходит третий молодёжный саммит РК-АСЕАН (ASEAN - Korea Youth Summit). Его участники обсуждал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ю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вет молодё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К. В саммите в режиме офлайн и онлайн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из 10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из Камбоджи, Индонезии, Лаоса, Филиппин.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транслировалась в прямом эфире через видеохостинг YouTube. 12 августа его участники объявят рекомендации, выработанные по итогам дебатов.

Продолжается снос южнокорейских объектов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Север продолжает снос или закрыт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объ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йт NK News,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йся на КНДР,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анализа спутниковых снимков. В частности, с середины июля идёт демонтаж или реконструкция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чного и западного корпусов комплекса «Ончжонгак» и комплекса «Курён».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начался демонтаж или перестройка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у этих объектов перекрашены крыши. Кроме того, замечена активность, которая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ана с работами внутри зданий.

Площадь Кванхвамун – место культурного отдыха

6 августа власти Сеула открыли доступ на площадь Кванхвамун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которая с ноября 2020 года была закрыта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Её размеры увеличены за счёт сокращ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полос на проспекте Сэчжон-но. Сейчас четверть площади покрыта зелёными насаждениями - деревьями, травяными газонами и цветочными клумбами. Мэрия Сеула превратила площадь в 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отдыха людей. С этой целью проведение митингов и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здающих помехи как отдыху людей, так и автомобильному движению, запрещено. Специальная экспертная группа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заявки на проведение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х соответствия назначению площади. Власти столицы будут временно блокировать провед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ерерасти в массовые митинги и собрания.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правил организатор может лишиться доступа к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течение года. Вместе с тем, площадь открыта для мероприятий чисто культу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Одни приветствуют такой подход, поскольку массовые митинги часто приводили к беспорядкам в центре Сеула. Другие называют такие меры нарушением Конституции, гарантирующей свободу собраний.

ЮНИСЕФ продолжает направлять вакцин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детям

Вакцины, отправленные Детским фондом ООН (ЮНИСЕФ) в КНДР, распределены по региона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8 авгу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в интервью радиостанции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По его словам, комбинированная вакцина была распределена по 13 регионам КНДР согласно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ётся вакцинация.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ставила КНДР 296 тыс. доз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й вакцины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смерте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среди детей,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дифтерия, коклюш, столбняк, гепатит В.

(RKI)

Новые визы могут привлечь зарубеж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отраслей

Сеул, 9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в октябре введет новую категорию виз под названием E-7-S,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больше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в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отрасли страны.

Текущая виза E-7 является рабочей визой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занятых в «белых воротничках», но количество жалоб возросло, поскольку только работники 92 указанных профессий имели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ы.

Новая виза E-7-S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ипа работы,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заявители оцениваются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ы, работающие в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отраслях. Однако работники физического труда или офисные работники в нетехнологичных секторах не будут иметь на это права.

«Компании жаловались, что текущие рабочие визы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е охватывают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новых отраслях, таких как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е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и киберспорт», — сказал Ли Сын

Хен, сотрудник визового отдела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Мы ожидаем, что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виз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оможет им нанять больше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 добавил он, продолжив, что новая визовая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квот для оценки спроса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заявители должны предоставить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того, что их последний годовой доход эквивалентен или превышает 70 процентов валов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хода Южной Кореи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Они также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ить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и не менее одного года опыта работы в свои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областях и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ять лет опыта работы.

Наряду с новой рабочей визой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запустить новую визу для стажировки под названием D-10-3, которая облегчает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мся в области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работу в качестве стажеров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ях.

Из-за рекордных осадков 19 человек погибли и пропали без вести

19 человек погибли и пропали без ве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кордных дождей, которые обрушились на Сеул, центральные и 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РК в период с 8 по 10 августа.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на 10 августа подтверждена гибель 11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шести человек в Сеуле, трёх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двух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Восемь человек числят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Затоплен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775 жилых домов и других

построек,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в Сеуле. Более 980 человек из 548 домохозяйств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размещены в школах и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зданиях. Их дома не подлежат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Ещё 4.297 человек из 2.042 домохозяйств эвакуированы временно. Корейская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тменила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 ливнях для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но сохранило его для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Там прогнозировались осадки интенсивностью от 30 до 40 мм в час.

KBS World

Концерт в Чхон Ва Дэ увидят в 117 странах мира

Сеул, 7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По случаю 77-й годовщины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15 августа в комплексе Чхон Ва Дэ 13 августа состоится специальный концерт в рамках кампании «Посетите корейское наследие», объяви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Фондом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и, в прошлом проводилось в раз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местах, включая Сувон Хвасон в Сувоне,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в 2020 году, и Кванханрувон в Намвоне,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Чол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темы «Открывается 600-летний путь» в этом году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мюзиклы, рассказывающие о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наследии, а также серия музыкаль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опулярных певцов и групп.

Осно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для выступлений станут главное здание и Санчунджэ в комплексе Чхон Ва Дэ и Кынджончжон в Кенбоккуне.

Желающ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должны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купку не более двух билетов на человека на веб-сайте фонд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а концерт будет допущено 3000 человек, а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выбраны путем лотереи.

Выступле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транслировать в 117 странах по каналу KBS World.

РК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совещании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Chip4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ообщило США о намерени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 совещании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го альянса Chip 4, предложенного Вашингтоном. Как сообщил агентству Ёнхэп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овещание пройдёт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или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Его участники, судя по всему, обсудят повестку Chip 4 и степень участ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тран.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на предстоящем совещании будет решаться вопрос об участии РК в альянсе. Изначально Вашингтон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ый альянс РК, Японии и Тайваню. Сеул подходит к этому проекту осторожно, учитывая позицию Китая, который воспринимает проект как меру по сдерживанию его рос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зывает данную инициативу диалогом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вопросе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KBS World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устроить всех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в в школы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нял вопрос открыт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ст для ребят, которые 1 сентября впервые сядут за парты.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ые школы примут порядка 7200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в.

– Часть родителей столкну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проблемой устройства детей в школу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Необходимо за две недели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этот вопрос и всем детям обеспечить места за партой в удобных для семей районах,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на этот учебный год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ланировалось открыть 97 классов – это 2824 места для младших школьников. На сегодня потребность выросла до 2997 мест.

217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ст были открыты в 13 школ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Дети из Лиственничного и Восточки зачислены в школу №6. Ребят будут доставлять на уроки и домой на школьном автобусе.

Места для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в открывают еще в восьми школах: кадетской, №4, 5, 6, 7, 13, 16, 21. В десят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ткрыты группы продленного дня.

Департамент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едет учет детей, чьи родители обратились по вопросу устройства в школы.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личии вакантных мест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прос устройства ребенка в школу решается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По вопросам зачисления в первый класс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8 (4242) 312-687 (добавочный 1 и 2). Линия работает по будням, с 9.00 до 17.15 с перерывом на обед.

Приемная кампан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длится до 5 сентября.

Мобильны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жителям отдаленных сел Итурупа

Нов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риобретут для Курильской ЦРБ. Поручение об этом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 проблем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на недавней встрече главы региона с курильчанами. Жители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сложность с получением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удаленных местностях.

– Передвижной медицинский комплекс очень нужен жителям Итурупа. Мы приняли оперативное решение о его покупке. На эти цел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около 3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пециалисты Курильск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процессу закупки техники. Планируем, что она будет обслуживать села Горное и Горячие Ключи. Чтобы вылечить зубы, жителям эт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риходится выезжать в районный центр. После приобретения моби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пециалист из больницы будет приезжать в села по график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окая проходимость и наличие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оказани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помощи – гла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к будущему мобильному комплексу.

– В условиях непогоды не каждая машина проедет до у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оэтому приобретается машина на шасси груз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я,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Курильской ЦРБ Елена Мацишина.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мобильный комплекс будет оборудован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оказания терапевтическо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Также здесь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вести несложные хирургически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например, удалить зуб. Кром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установки, комплекс будет иметь цифровой рентген-аппарат, стерилизацио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другую аппаратуру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ле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Дмитрий Чернышенко: За год прирост турпотока на Сахалин составит около 25 проценто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Дмитрий Чернышенко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го визит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оценил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гиона. Совместно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Корпорации «Туризм.РФ» Денисом Секачевым он посетил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Дмитрий Чернышенко отметил, туризм – один из самых мощных драйве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ась в нацпроект «Туризм и индустрия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и стремится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и, поставлен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по ускоренному созданию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Сахалин – уникальный регион, который многие желают посетит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урпоток составил 211 тысяч человек, а в этом году по прогнозу приедут уже 279 тысяч туристов – это хорошая динамика и прирост почти на 25%. И мы видим здесь удачное начало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вселяют большой оптимизм для всех будущих инвесторов, которые, я уверен, сюда придут. Власти Сахалина активно борются за

туристов, тес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в этом вопросе со всеми профиль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порации «Туризм.РФ» в регионе создаются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е уникаль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кластер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увеличи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ок. Причем курорты делаются круглогодичными,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можно будет зимой кататься на лыжах, летом совершать экологические походы, заниматься туризмом, в том числе и горным, ну и, конечно же, увидеть все красоты Сахалина, – сказал Дмитрий Чернышенко.

– Наш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 центр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любителей зимнего отдыха со всей России, жемчужин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Ежегодно зимой его посещают 240 тысяч человек, а общая длина трасс составляет 35 километров. На курорте параллельно с созданием горнолы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 коммерческий сектор. Так, в рамках ТОР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крываются современные рестораны, гостиничные комплексы и зоны отдыха. Они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не только туристами, но и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а также откроют новые вакансии на рынке труда.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должна быть продолжен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ице-премьер напомн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рпорация «Туризм.РФ»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намерениях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и реализации мастер-планов по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в регионе.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требуется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анатных дорог «Красная-Юг», а также систем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негообразования.

–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ручило Минстрою и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до 1 декабря детально проработать этот вопрос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порацией и областью. Кроме того, есть целый ряд приоритет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по создани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номерного фонда. Они ведутся совместно с «Туризм.РФ». Так что вместе продолжаем идти к цели создания доступного, комфортного и безопасного отдыха для наших граждан, – добавил вице-премьер.

В Шахтерске необходимо наводить порядок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Углегор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провел сразу две встречи с жителями. Сначала губернатор почти два часа отвечал на острые вопросы шахтерцев.

Множество жалоб поступило на состояние дорог в районе.

– У нас в районе ведется многомиллионная добыча угля, а люди ходят по грязи, и междугородние автобусы застревают на дороге, – обратились к главе области жители Шахтерска.

– Я согласен, что на улицах грязно, н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ухода за дорогами. На это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как только прибыл в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 поддержал сахалинце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Чистоту и порядок нужно наводить немедленно!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было выделено в пять раз больше средств, чтобы дороги в районах содержались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Как поясн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к работе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Начался ремонт дороги между селами Аинское и Медвежье.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на трех участках трассы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До 2026 года дорогу по западному побережью Сахалина – от Ильинского до Углегорска –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 Содержанию дорог местным властям нужно уделять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есть особенности – строится серьезный промышленный объект, много большегруз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этому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гравированию и отсыпке должны выполняться чаще,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транса.

Кроме того, до 2024 года собираются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улицу Мира в Шахтерске и Инженерную в Углегорске.

Острой на встреч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стала также 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Жители рассказали о нехват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опасть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 Месяц назад моей жене дали талон на УЗИ сердца. Сегодня поехали в Углегорск, а врач, оказывается, в отпуске. Теперь нам надо снова идти к терапевту, а потом еще месяц ждать направл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Шахтерск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звал такой подход недопустимым. – Если врач уходит в отпуск или на больничный, пациент не должен страдать и упираться в закрытые двери. Людей необходимо оповещать, иска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замену,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пациентке выписали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диагностику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А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Углегорска и Шахтерска будут усиливать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з других районов. Так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в районе починят компьютерный томограф – необходимые запчасти уже в пути.

Ряд обращений затронул тему ремонт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домов.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развернулась масштаб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сметического ремонта подъезд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этом году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38 подъездов в 14 домах.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сширять программу. Область готова помогать районам и предусмотрела субсидии для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на косметический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Прозвучала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я, что к 1 октября в район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14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и федеральной –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екущими работами охватили 76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окрытия н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 Сегодня я из первых уст услышал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волнуют людей. На улицах грязно, дороги содержатся плохо. Нужно ремонтировать больше дворов и подъездов. Людей беспокоят также вопросы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качество и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ручил региональн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месте с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разработать программу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ных вопросов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Я обязательно снова приеду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 и проверю, как выполняются поставленные задачи, – резюмировал итоги встреч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го в ходе общения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жители Шахтерска озвучили более 30 вопросов. По ним д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и установлены контрольные сроки исполнения.

Более 18 тонн охлажденного лосося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реализ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путины поставки даров моря напрямую от рыбодоб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рганизованы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Горбушу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от 78 до 10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Продажи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по ценам,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рыночных, проводятся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Горбушу уже поставили в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север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География продаж зависит от вылова предприятий.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бесплатно раздали более 4 тонн горбуши и кеты. В акции поучаствовали компании: ООО «Алаид», ООО «Гранис» и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асвет».

– Мы провели переговоры с рядом рыбодоб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высказали твердое намерение продолжать практику поставки свежей рыбы без наценок, чтобы наши жители 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каче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ван Радченко. – Поставку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го лосося по ценам, ниже рыночных, уже осуществляют 19 компаний. Отпускная цена предприятий на горбушу составляет от 60 до 80 рублей, в рознице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нашей программы стоимость 1 килограмма от этих поставщиков – не более 100 рублей.

Поставки свежего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лосося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осуществляют компании: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к», ООО «Рыбак», ООО «Меридиан», ООО «Континент», ООО «Океан», ООО «Прибой-Восток», ООО «Оха», ДО ООО «Сэндчери», ООО «Тайра-Долинск», ИП Ким И.А., ИП Хрянин И.В., ИП Щацков М.А., ООО «Янтарное», РХ «Наньво», ООО «Прибой-Корсаков», ООО «Нептун».

–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социальную ориентированность наших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их желание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свежей качественной рыбой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При этом они не только продают, но и раздают свежий улов.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ыбодоб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подтверждают свою готовность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жителей свежим уловом, в том числе горбушей, кетой, напрямую с промысл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Козлов.

Напомним, в течение года островные рыбодоб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реализации задач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вежим уловом. Рыба напрямую с промысла, минуя посредников, отправляется в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для продажи в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ых точках. Отсутствие затрат на переработку и заморозку, бесплатные торговые места, а также помощь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п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уловов в отдаленные районы позволя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дукцию по ценам,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рыночных.

Узнать о местах, ценах и ассортименте даров моря можно с помощью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map.sakhalin.gov.ru/Fresh_fish, в приложении «Острова65»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s://vk.com/agent_ribalka65 <https://ok.ru/group/55304504213754/topics> и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Кроме того, сохран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го вылова рыбаками-любителями трех штук горбуши в сутки. Он разрешен с 1 июня на специально выделенных для этого участках морской акватории у побережь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казанных в правилах рыболовства: https://fish.sakhalin.gov.ru/?page_id=3217.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 고려인마을 흥상 제막

광산구 15일 제막식, 유해 봉환 큰 역할 장원창 전 원장
명예구민증 수여

[중앙통신뉴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과 광복 제77주년을 맞아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건립, 오는 15일 제막식을 개최한다. 광산구는 특히, 고려인에게 한국 문화를 전파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역할을 한 장원창 전 러시아 사할린교육원 원장에 광산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사진=홍범도장군 원본사진.초상화/광산구청

특히, 홍범도 장군 묘소를 지킨 '한국어 교사'이자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흉상 건립에도 적극 참여한 장원창 전 원장에게 광산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장 전 원장은 1994년 장군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남북한의 외교전이 극심했을 당시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장군 묘소를 관리하며 지켰던 인물이다. 이와 함께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0여 년간 고려인과 재외동포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썼다.

광산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와 함께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상징물로 흉상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제막식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홍범도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월곡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바람이 되어, 카자흐스탄에서 월곡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의 아리랑, 홍범도 장군의 주제 영상 등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흉상 건립을 축하하며 함께 해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월곡동 주민이자 홍범도 장군의 후손인 남양 홍씨 전국 종친회 홍우표 회장을 비롯한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장군이 다시 살아온 듯 강직하고 굳센 기개를 재현한 작품을 제작한 김희상 작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재외동포재단, 2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우수등급(A) 획득

2021년 우수공시 기관 선정,
20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우수등급에 이은 성과
경영실적평가 경영관리부문은 2년 연속 '탁월(S)'
등급 획득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2021년도 외교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달성하였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2022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

*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관리 및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외교부의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혁신성과 등 가점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경영관리부문에서는 2년 연속 '탁월(S)' 등급을 획득하였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 전략을 재정립하고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국초청사업 개최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다변화하여 주요사업부문 역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2021년 우수공시 기관 선정, 20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우수등급에 이어 '2021년 경영실적평가 우수등급'은 전 임·직원의 노력이 빚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한아람 우즈벡 국립예술대 부교수 "민족의 아픔 위로하고 공유하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사명"

10년 전 고려인 동포들의 눈물 잊지 못해
오는 13일 중앙아시아서 조상의 뉘 위로
한국 무용 음악극 '민들레 아리랑' 선봬

"예술을 통해 고려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유하는 것이 춤을 추는 예술가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 머나먼 타국땅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리랑을 무대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아람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대학 부교수가 남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한 말이다.

한 부교수는 광활한 중국 대륙을 넘어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적인 정서와 움직임을 바탕으로 예술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 부교수가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한국 무용·재즈댄스·K-POP 등 여러 장르의 혼합을 시도한 무용 음악극을 선보인다.

한 부교수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싹을 틔어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지난 100년 가까운 세월을 낯선 땅에서 꽃 피우듯 우리 민족을 지켜온 고려인들을 보며 조국에 남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위로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춤을 추는 예술가로서 춤을 통해 고려인들의 민들레 같던 삶을 세상에 다시 한번 알리고 위로하기 위해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우즈베키스탄 국립 예술대학교 극장에서 한국의 한(恨)이 담긴 한국무용 음악극 '민들레 아리랑'을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10년 전 한 부교수가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실천하는 현장이다. 10년 전 그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성신여자대학교를 대표해 주연 무용수로 러시아 모스크바와 사할린 무대에 올랐다. 사할린 공연 당시 무대의 첫 곡인 아리랑이 흘러 나오자 눈물을 흘리는 고려인 동포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한 부교수는 "당시 관객들은 한국의 말과 글을 모르는 고려인 3~4세가 대부분이었지만 할아버지·할머니의 부모님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로 끌려와 모진 세월을 이겨내면서 입 억하고 있었다."며 "아리랑이 흘러나오자 모든 관객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 이후 한국에 돌아와 고려인에 대해 알아보기



한아람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대 부교수와 공연에 참여할 학생들의 연습 모습. /한아람 교수 제공

시작했고, 그때의 감동을, 위로와 공감을 다시한번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시작했다. 딱 1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의 지사장 발령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게 됐다."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해마다 어김없이 피어나는 들판의 민들레와 같이 낯선 땅에서 꽃피우듯 우리 민족을 지키고 살아낸 삶에 대한 감사, 위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대학교 극장 무대에 오르는 '민들레 아리랑'은 강제이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온 고려인의 고된 삶과 그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정착해 화합을 이루는 내용을 그린 창작무용 음악극이다. 재즈댄스의 현대적인 움직임과 한국 전통 무용 고유의 질감과 표현 요소에 조화를 이끌어내고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과거·현대, 전통 현대를 넘나드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한민족의 뿌리를 되돌아보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험을 음악과 춤으로, 서로 다른 현대 춤 장르의 혼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대학생들이 무용수로 참여하게 했고 특히 고려인 학생들을 우선 오디션에 참여하게 했다. 공연 연습 과정에서 고려인이 타국땅에 정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또한 한 부교수는 현지 첫 수업을 '고려인'을 주제로 했다. 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제 수업을 듣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문화대학교 학생들은 일제 강점기와 독립운동,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시간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연은



한아람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대학교 부교수

많은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미숙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현정·송혜림 무용수, 뉴욕에서 활동하는 가야금리스트이자 뉴욕한류재단 대표인 서라미, 가야금 그룹 재미나 이·신새봄·이영훈 연주자 등이 이번 공연을 위해 직접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함께 무대에 오른다.

한아람 부교수는 "음악극 '민들레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함께 강제이주 열차에 몸을 실었던 고된 삶을 시작으로 그 안에서 고려인이 겪은 희·노·애·락을 담은 작품"이라면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스토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현재에 대한 감사와 과거에 대한 기억의 위로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전 세대의 관람객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연이 한국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며 공연을 앞둔 소감을 피력했다.

(출처: 남도일보)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여성, 꽃 팔려다 14만9천 루블리를 잃다

집에서 재배한 꽃을 판매하고자 온라인상에 광고를 냈던 사할린 여성(33세)이 경찰서를 찾았다. 꽃 구매자가 이 판매 여성에게 링크를 보냈는데 링크 접속을 통해 여성의 카드 정보가 유출되고, 이후 그녀의 카드에서 1280루블이 빠져나갔다. 판매 여성은 이 돈을 환불받으려고 링크를 통해 '광고 사이트' 지원센터에 문의하니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라는 권유를 받고, 링크로 들어가 환불받기 위해 2회나 카드의 번호를 입력하자 이후 2100루블이 또 빠져나갔다. 계속해서 판매 여성은 이런 절차를 8회나 실행하여 여성이 빼앗긴 금액은 14만9천 루블리에 달했다.

사기꾼들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심한 주의력과 기본 상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를 실행하지 말아야 하며, 은행계좌-에스엠에스(sms)를 통해 들어오는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 때 환전이나 선불금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기꾼들은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어 당신이 가진 자금을 처리해버린다. 사기꾼들이 당신이 가진 자금을 갈취하려 할 때는 바로 제때 경찰에 신고하여야 또다른

사람들이 사기꾼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고 사할린주 내무국이 전했다.

Сахалинка лишилась 149 тысяч рублей, желая продать цветок

В полицию обратилась 33-летняя сахалинка, которая в сети разместила объявление о продаже домашнего цветка. Покупатель прислал заявительнице ссылку, перейдя по которой, она ввела данные своей карты, после чего произошло списание 1280 рублей. С целью возврата своих денег заявительница связалась с центром поддержки "сайта объявлений" (перейдя по ссылке), где ей порекомендовали пополнить карту и, перейдя по ссылке, ввести номер карты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денег в двукратном размере, что заявительница и сделала, после чего произошло списание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в сумме 2100 рублей. Далее заявительница повторила данную процедуру еще 8 раз. Общая сумма ущерба составила 149 150 рублей.

Помните, чт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мошенникам возможно лишь повышенным вниманием и здравомыслием. Не совершайте по просьбе незнакомых лиц денежные операции, не сообщайте никому пароли, приходящие посредством смс-банкинга, не соглашайтесь на предоплату или размен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при покупке/продаже товара через интернет-объявл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таких действий мошенники получают исчерпыва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счетах и могут распоряжаться вашими денеж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Если мошенники все же сумели завладеть вашими деньгами, то своевременное обращение 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может помочь другим людям не попасться на уловки злоумышленник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УМВД.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광복절 행사에 초대합니다!

8월 20일(토)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공원의 '코스모스'경기장에서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 프로그램에는 명절 공연, 노래자랑,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 한식 요리체험실(찜뽕), 씨름축제 등을 펼친다.

행사조직위원회

Приглашаем на праздник!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глашает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77-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аздник состоится 20 августа в 11.00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мени Ю.Гагарин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стей ждет насыщенная 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участием сахалин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ДШИ «Этнос», конкурс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сн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народному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мастер-класс и дегуст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Тим пан" - паровые пирожки с фасолью,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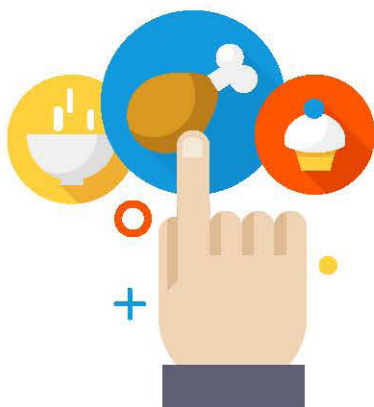
Оргкомитет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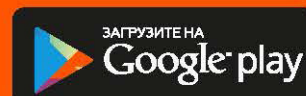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x.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